

임나의 위치비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스에마쓰의 한반도남부설을 중심으로-

정 암*

1. 시작하는 말
2. 임나 설치의 근거
3. 『일본서기』의 임나7국에 대한 위치 비정
4. 전라도 지역이 임나 강역이라는 내용 검토
5.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3세기부터 7세기 전반까지 거의 500년간 약 17회에 걸쳐 야마토 정권이 신라를 정벌했다는 기사와 미마나(任那) 미야케(官家屯倉)와 관계된 기사가 실려 있다.¹⁾ 일본인 학자들은 이 미마나 미야케를 일본 고대의 야마토 조정이 소유한 임나직할령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그들은 임나(任那)를 경상남도의 가야(伽耶)에 비정하고, 그 가야를 고대 야마토 조정의 직할령이었다고 보았다. 달리 표현하면 일본인 학자들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고, 일본부(日本府)는 그것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었다고 주장한다.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근대의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고대에는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기 위한 임나일본부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런 인식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일까? 이러한 경향은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간파된다. 일본의 위키백과는 연구사를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매우 길지만, 본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부분만 잘라내어 살펴보자.

*전 관동대학교 겸임교수

1) 김석형, 1988, 『조선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71쪽.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에서 가야지방의 연구에서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를 왜국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파견기관이라고 사서 그대로 해석했다. 그런 흐름에서 진행된 연구는 메이지 시기의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간 마사토사(菅政友)를 위시하여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를 거쳐 전후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임나홍망사』로 집대성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인식은 임나일본부의 연원을 『일본서기』 신공기에 나오는 “미야케”에 근거해서 임나일본부는 가야지방=임나지방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한정벌의 모델이 된 한반도로의 출병을 4세기 중반(신공황후 49년<249년>을 2주갑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369년으로 추정)으로 삼았으며, 이후 그 지역은 왜왕의 직할지였다고 했다. 또 임나일본부는 당초에는 임시 군사기지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국은 상설기관이 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그 후 고구려나 신라가 백제 북부를 침범하게 되자 백제는 야마토에 원군을 요청했다. 554년 백제가 신라에 패하고 성왕(聖明王)이 살해되었으며, 562년에는 임나 전역을 신라에 빼앗겨 일본부는 소멸하게 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1970년대까지는 고대의 일본이 4세기 후반부터 조선 남부를 지배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견해는 일본 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1963년 북한의 김석형이 제출한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의 분국에 대해서」라는 논문이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석형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분국론>이라 불리며, 간단히 말하면 한반도 삼국이 일본 내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분국론 자체는 한국 우월의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터무니없는 설로 학계에서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당시의 일반적 통설에 파문을 일으켰다.

1970년대

구로이와 주고(黒岩重吾)는 “1970년대는 임나라는 말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낙동강 유역의 옛 가야 지역의 발굴조사가 비약적으로 진행되었고, 문헌사료가 적은 가야사를 연구하기 위한 재료가 많아짐과 동시에 『일본서기』의 기술에 이끌리지 않는 과학적 논의가 가능해졌다.²⁾

2) 이후에는 일본서기를 비롯한 중국이나 한국의 사서에도 한반도로의 왜국의 진출을 나타내는 사료가 존재한다고 본 점, 광개토왕비에 왜가 신라나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타난다고 본 점, 백제·신라·가야의 세력권 내에서 일본산 경옥 제품인 구옥(勾玉, 고대의 장신구로서 끈에 꿰어 목

.....

요컨대 일본에서 임나일본부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구한말에는 나카미치요(「가야고」『사합잡지』 5(3), 1893)와 간 마사토사(『임나고』 3권, 1907)가 이끌었으며, 그 요지는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임나일본부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한론(征韓論)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쓰다 소우키치(『조선역사지리』 2권, 1913) 등을 거쳐 스에마쓰 야스카즈(『임나홍망사』 1949)에 의해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분국론을 주장하는 북한의 김석형 연구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임나일본부를 일본의 오카야마현 기비에 비정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대마도설, 규슈설 등이 주장되었다.

이처럼 임나일본부의 위치를 두고 한일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주장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홍망사』를 대상으로, 거기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 한반도남부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임나홍망사』가 발간된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거나 고대 한일관계사를 언급할 때 그의 주장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명의 개별적 위치비정은 스에마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쓰다, 아유카이, 김현구, 동북아역사재단의 견해도 함께 다룰 것이다.

2. 임나 설치의 근거

스에마쓰는 모든 논리의 출발점을 369년, 즉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 조의 기록에서 찾고 있다. 그 기록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에 대한 기사이다. 아래 인용문이 그것이다.

에 거는 구부러진 옥돌, 고구려의 영내에 드물)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한반도에는 구옥으로 사용되는 경옥 생산지가 없고,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일본의 니가타현 이토이가와 주변과 미얀마에서밖에 생산되지 않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신 화학조성의 검사에 의해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구옥이 이토이가와 주변의 유적에서 토포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본 점, 일본열도의 독특한 묘제인 전방후원분이 전라남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곳은 임나4현이라고 불리는 광의의 임나의 일부라고 본 점, 송서왜국전 가운데서 451년, 송조의 문제가 왜왕제(운공천황으로 비정)에게 ‘使持節都督、신라、임나、가라、秦韓、慕韓六國諸軍事’의 號를 주었다는 기술이나, 478년 송조의 순제가 왜왕무(웅락천황으로 비정)에게 ‘使持節都督倭、신라、임나、가라、진한、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이라는 號를 주었다고 기술되어 있다는 점(<https://ja.wikipedia.org/>)을 들어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A-1

(己巳=369年) 황전별(荒田別: 아라타와케)·녹아별(鹿我別: 카가와케)을 장군으로 삼고 백제의 사자(使者)와 함께 군사를 갖추고 바다를 건너 탁순국(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정벌하려고 했으나, 군사의 무리가 많지 않음을 알고 다시 군사(軍使)를 일본에 보내 병력을 늘려줄 것을 청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목라근자(木羅斤資) 등을 보냈다.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쳐부렸다. 이로써 비자발(比自伐) 이하 7국을 평정했다. 이어 군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남만(南蠻) 침미다례(沈彌多禮)를 무찌르고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 백제왕 부자(肖古王·貴須)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이하 4읍은 자연스레 항복했다. 백제왕 부자 및 황전별·목라근자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 천웅장언(千熊長彦: 지쿠마 나가히코)는 백제왕과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세를 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맹세를 했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 56-57쪽.

A-2

49년 봄 3월에 황전별(荒田別: 아라타와케)·녹아별(鹿我別: 카가와케)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개로(沙白蓋盧: 사하쿠 코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즉 목라근자(木羅斤資), 사사노케(沙沙奴跪)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比自伐),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7국을 평정했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海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沈彌多禮)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지(布彌支), 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녹아별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 서로 보고 기뻐하며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천웅장언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辟支山)에 올라서 함께 반석(磐石) 위에 앉았다. 그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갈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 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 칭하며 해마다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천웅장언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

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딸려서 보냈다.

위 인용문에서 A-1은 스에마쓰가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조의 기사를 요약해서 자신의 책 『임마홍망사』에 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축약되어 있어 내용에 빠진 것이 많으므로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A-2이다.

신공조의 기사에 대해 일본의 쓰다 소우키치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에 비해 스에마쓰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김현구는 황전별과 녹아별 등은 가공의 인물로 여기면서도 목라근자는 백제장군으로 보고 있다.³⁾ 스에마쓰가 임나7국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근거는 주로 지명의 음운학적 방법이다. 이 음운학적 방법이 위치 비정을 어떻게 이끌게 되는지는 뒤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

3. 『일본서기』의 임나7국에 대한 위치 비정

스에마쓰는 369년 야마토 왜가 군사를 보내서 정벌한 곳이 가야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기사년(369년을 말함)의 기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해에 평정했다고 기록된 지역의 넓이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신라를 공격해서 평정했다는 7국에 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낙동강 중류 이남의 태반에 걸친 지역임을 알 수 있다.(松和, 46쪽)

스에마쓰는 369년에 야마토 왜군이 신라를 공격해서 7국을 평정했는데, 그 지역이 낙동강 중류 이남의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가야6국과 『일본서기』의 임나7국은 나라 숫자도 다르고 나라 이름도 모두 다르다. 즉 『일본서기』는 이 임나7국을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삼국유사』는 가야6국을 금관가야·대가야·고령가야·아라가야·성산가야·소가야라고 기록하고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같은 국명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스에마쓰는 임나7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비정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비자발이다.

3) 김현구, 2010,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47쪽.

(1)비자발(比自伐)은 서기(書紀: 일본서기를 말함)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 삼국사기의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군(比斯伐郡)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며,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이다.(末松, 46쪽)

『삼국사기』「지리지」에 비자화 또는 비사벌은 두 곳에 나온다. 하나는 완산(完山), 곧 전주의 옛 지명으로 나오고,⁴⁾ 또 하나는 창녕에도 나온다. 같은 지명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창녕현 건치연혁에도 나온다. 이는 의문의 기록인데, 스에마쓰는 창녕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김현구도 창녕으로 비정했다.⁵⁾ 쓰다⁶⁾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역주 일본서기1』⁷⁾(이하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약칭함)에도 『삼국사기』「지리지」를 근거로 창녕으로 비정했다. 일본인 학자들의 위치비정에서 ‘비자(比自)’라는 두 글자가 같은 것은 크게 이례적인 적중률이다. 아무튼 두 글자가 같으니 그렇다고 해두자.

다음은 남가라를 보자.

(2)남가라(南加羅)는 아래의 (7)가라(加羅)에 대한 지명이라고 생각되고,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남가야(南加耶)’로 비정된다,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이다.(末松, 46쪽)

『일본서기』의 남가라(南加羅)와 『삼국사기』의 남가야(南加耶)는 다르다. 남가라는 가야가 일본 열도로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삼국사기』의 남가야라고 볼 수는 없다. 김현구도 스에마쓰 설에 따라 김해로 비정했다.⁸⁾ 쓰다는 구포(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 맞은 편),⁹⁾ 동북아역사재단은 쓰다와 같은 논리로 김해에 비정하고 있다.¹⁰⁾

4) 『삼국사기』「지리지」 완산주.

5) 김현구, 앞의 책, 43쪽.

6)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底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여기서는 『津田左右吉全集』, 第11卷(1964), 岩波書店에 의함, 101쪽),

7) 연민수, 김은숙, 이근우, 정효운, 나행주, 서보경, 박재용, 2013, 『역주 일본서기1』 동북아역사 자료총서123, 동북아역사재단, 501쪽.

8) 김현구, 앞의 책, 43쪽.

9) 津田左右吉, 1964, 104-105쪽.

10)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501쪽.

다음은 탁국을 보자.

(3)탁국(喙國)은 삼국사기의 달구화현(達句火縣)(달벌[達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쉽지만, 아래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달구화는 (6)탁순(卓淳)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국은 달구화 남쪽 3리 남짓 떨어진 압독군(押督郡)이다. 압독의 독(督)이 탁(喙)과 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조선어 발음 ap)은 남쪽이나 앞[前]을 의미하는 조선어 ap, arp를 나타내는 것으로, 달구화의 지리적 관계로부터 생각해 보면 어울리는 이름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군이다.(末松, 46-47)

탁국은 『삼국사기』의 달구화, 즉 대구에 해당하지만 대구는 탁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국은 압독군, 즉 경상북도 경산군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산현 건치연혁에 압독은 경산의 옛 이름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탁국과 압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근거라고는 탁국의 ‘탁’이 압독의 ‘독’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탁국에서는 앞의 ‘탁’을 떼고, 압독에서는 뒤의 ‘독’을 떼서 비교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게다가 압독을 ‘앞’이란 뜻으로 읽어서 대구의 앞에 있는 경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박약하다. ‘앞’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 자체에 방위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은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으며,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북쪽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현구는 탁국을 녹국으로 읽으면서 스에마쓰 설에 따라 경산으로 비정했다.¹¹⁾ 쓰다는 영산 및 그 동남쪽, 낙동강 북안이라고 비정하고 있으며,¹²⁾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서기 계체천황 21년조를 운운하면서 경산지역 또는 창녕 영산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¹³⁾

다음은 안라를 보자.

(4)안라(安羅)는 위지(魏志) 한전(韓傳)의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삼국사기의 아시량국(阿尸良國)과 아나가야(阿那伽耶)이다. 호태왕비에는 그대로 안라로 보여진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이다.(末松, 47쪽)

스에마쓰는 세 개의 자료를 들어 안라의 위치를 비정했다. 이들 자료보다 훨씬 후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함안군 건치연혁에도 “본래 아시량국(‘아나

11) 김현구, 앞의 책, 43쪽.

12) 津田左右吉, 앞의 책, 102-103쪽.

13)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501쪽.

가야'라 하기도 한다)인데,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안라를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스에마쓰가 자의로 안라를 변진구야국, 아시랑국 등으로 비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함안이라고 비정한 것이다. 김현구도 함안으로 비정했다.¹⁴⁾ 쓰다도 지명, 지리, 일본서기를 근거로 함안으로 비정했다.¹⁵⁾ 동북아역사재단도 스에마쓰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함안으로 비정했다.¹⁶⁾

위 인용문의 “호태왕비에는 그대로 안라로 보여진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자. 호태왕비에는 ‘안라’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이라는 동그라미 부분을 ‘任那新’이라고 자의로 넣어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임나, 신라를 쳐부순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했었다. 김진명에 의하면 광개토왕릉비의 중국 측 권위자인 왕건군(王建群)의 저서 말미에 광개토왕릉비의 저본이 필름 형태로 실려 있는데, 그것은 비석에 사람의 손이 가해지기 이전의 글자를 초균덕(初均德)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동(東)자가 쓰여 있었다. 그래서 김진명은 왜가 백제와 임나, 신라를 쳐부순 것이 아니라 “백제가 동으로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본 자료를 들고 일본의 광개토왕릉비 연구의 일인자인 도쿄대학의 동양사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오랫동안 저본을 살펴본 후 신뢰성을 확인하더니 “사실 그 자리에 임나를 집어넣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내 책에서 임나 일본부를 빼고 다른 저자들에게도 권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¹⁷⁾ 김진명의 말에 근거하면 ‘호태왕비에도 안라로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말을 운운하며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비정하는 스에마쓰의 주장은 넌센스이다.

다음은 다라를 보자.

(5)다라(多羅)는 삼국사기의 대량주(大良州) 또 대야주(大耶州)로서 다벌(多伐)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천이다.(末松, 47쪽)

14) 김현구, 앞의 책, 43쪽.

15) 津田左右吉, 앞의 책, 100쪽.

16)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501쪽.

17) 김진명, 2017, “광개토대왕비의 사라진 세 글자”, 『김진명의 한국사 x파일』, 새움, 38-71쪽을 참조할 것.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합천군 건치연혁에 “본래 신라의 대량주: 양(良)을 어떤 때는 야(耶)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지만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라와 ‘대량주’나 ‘다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양자와의 관련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에마쓰는 다라를 경상남도 합천이라고 굳이 비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김현구도 합천이라고 비정했다.¹⁸⁾ 아유카이는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자. 그는 多(ta)는 大(tay)와 통한다고 한다. 達句(taku)를 대구(tayku)라고 하고, 多多羅(tatla)를 多大浦(tatay kag)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¹⁹⁾ 이에 대해서 쓰다는 다라와 대량은 음성이 서로 가까워 그릴 듯하지만 합천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를 고려하면 합천을 가라7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반성(班城)에 비정하고 거기에 (?)를 달았다.²⁰⁾ 동북아역사재단도 『삼국사기』 「지리지」의 본대량주군(本大良州郡)을 근거로 들어 합천에 비정했다.²¹⁾

다음은 탁순을 보자.

(6)탁순(卓淳)은 첫째 탁순(喲淳)에서 만들었다(흙명천황기).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일본군의 집결지이자 아래 기술하는 것처럼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신의 도래지라는 점으로 볼 때, 앞서 말한 달구화(達句火)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대구이다.(末松, 47쪽)

앞서 탁국(喲國)을 대구로 비정해야 하는데 경산으로 비정했기 때문에 탁순을 대구로 비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재미있다. 『일본서기』 신공(神功) 46년조에는 백제에서 사신을 탁순에 보내서 일본귀국(日本貴國)에 조공하러 가고 싶다면서 길을 묻는 내용이 있다.²²⁾ 그렇기 때문에 탁순이 대구라는 것이다. 스에마쓰가 말하는 백제는 한반도의 백제인데, 해안에 능한 백제가 왜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내륙인 대구로 가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겠는가? 매우 불합리한 논리인데, 김현구는 이런 스에마쓰 설을 따라 탁순을 대구로 비정했다.²³⁾

쓰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에 의하면 “신공기 46년조에 백제인이 처음

18) 김현구, 앞의 책, 43쪽.

19) 鮎貝方之進, 앞의 책, 302쪽.

20) 津田左右吉, 앞의 책, 108-110쪽.

21)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501쪽.

22) 『日本書紀』神功 46년 3월조.

23) 김현구, 앞의 책, 43쪽.

으로 일본에 입조하려고 할 때 탁순에 와서 통로를 찾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탁순은 바닷가에 있고 일본으로 통하는 양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다소의 전설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방면에서 관찰해서 그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 이 언급만 가지고 보면 지리적·역사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명에 따라 위치를 비정하려고 드는 스에마쓰보다 일본서기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쓰다가 훨씬 논리적임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쓰다는 역사와 지리적 논리를 통해 칠원에 비정했다. 이곳이 마산포를 사이에 두고 해로로 일본에 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⁴⁾ 그럼에도 여전히 칠원이 백제인이 일본으로 가는 통로를 찾기 위해 길을 물을 수 있는 곳 치고는 너무 내륙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거나 아니면 내륙으로 걸어서 접근해야 하는데, 일본열도가 아닌 한반도 남부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탁순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다음은 가라를 보자.

(7)가라(加羅)는 (2)의 남가라에 상대하는 지명으로 생각되며,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대가야(大伽耶), 즉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다.(末松, 47쪽)

앞에서 남가라를 금관가야인 김해로 비정했으니까, 전부요소 남(南)자가 빠진 가라는 대가야인 고령에 비정하겠다는 논리다. 쓰다²⁵⁾는 『삼국사기』 「이사부전」의 “가야는 가라라고도 한다”는 기사와 「사부함전」의 “가라는 가야라고도 쓴다”는 기사를 들어 김해에 비정했다. 황순종의 표현을 빌리면 “남가라가 남가야가 아니듯 가라도 가야가 아닌 것이다.”²⁶⁾ 동북아역사재단²⁷⁾은 고령으로 비정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서기』의 임나7국과 『삼국사기』의 가야6국은 이름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것은 개의치 않고 가야가 임나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에 같은 글자가 있거나, 비슷한 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무리하게 서로를 대응시켜 위치 비정하는 불합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위치 비정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24) 津田左右吉, 앞의 책, 104-108쪽.

25) 津田左右吉, 앞의 책, 104-108쪽.

26) 황순종, 앞의 책, 87쪽.

27)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502쪽.

4. 전라도 지역이 임나 강역이라는 내용 검토

임나가 가야라는 것은 일체의 문헌적·고고학적 근거가 없는데, 게다가 스에마쓰의 경우는 임나의 강역을 전라도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가 임나 강역을 전라도까지 확장시키는 내용을 살펴보고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자.

다음은 그의 저서 『임나홍망사』에 나오는 ‘침미다례’와 ‘강진’에 관한 기사이다.

이어 둘째로 서쪽의 정복지로는 먼저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彌多禮)가 있다. 이것을 하나의 지명으로 본다면 중심은 침미(枕彌)에 있다. 침미에 관한 제일 후보지로 여겨지는 곳은 삼국사기 지리지 무주(武州)의 도무군(道武郡) 및 그 군의 속현 중 하나인 동음현(冬音縣)이다. 도무(道武)와 동음(冬音)은 각각 군과 현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지역이지만, 원래 도무라는 지역에서 분화된 것으로 그 지방 일대가 도무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단에 가까운 강진(康津) 지방이다.(末松, 47-48)

스에마쓰는 ‘침미다례(枕彌多禮)’에 ‘トムタレ(토무타레)’라는 한국어 발음을 가타카나로 나란히 적어 놓았다. 즉 침미다례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한국어 발음을 가지고 찾기 시작한 것이다. 토무타레를 가지고 찾으니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진주에 속한 군현 중에 도무군이 있고, 그 속현에 동음현이 있다는 것이다. 도무군은 전라남도 강진이다. 그래서 『일본서기』의 침미다례가 전라남도 강진이 된다는 것이다. 김현구도 강진으로 비정했다.²⁸⁾ 이에 대해 쓰다는 뒤에서 다루게 될 4읍이 항복한 후, “이로써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이 함께 의류촌에서 서로 만나 기뻐하며 예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라고 하고, 다음해 기록에 “다사성(多沙城)을 더해 내려주어 오고 가는 길의 역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침미다례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이들 지방은 모두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다사의 소재와 대체적인 방위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한다사군(韓多沙郡)이란 이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비정하고 있다. 지금의 하동(河東)이다.

여기서도 쓰다는 재미있는 지리적 논리를 편다. 침미다례를 도륙하고 비리 등 4읍이 항복했을 때 그것들은 일본의 소유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위치는

28) 김현구, 앞의 책, 44쪽.

다사 부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 일본군대가 7국을 평정한 후 육로를 따르지 않고 해상으로부터 군대를 움직였을 것이고, 군대는 마산포 방면으로부터 도곡(島曲)을 우회해서 서방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일본군 진군의 목적은 주로 백제와 일본과의 교통로를 열려고 한 것 같고, 정복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다사 부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해남(海南)에 비정하고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스에마쓰의 임나영역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까지 뻗어 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지명의 어원에 따라 비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쓰다는 지리적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나의 강역을 동쪽은 낙동강, 북쪽으로는 대략 하왕산에서 하동 북쪽을 잇는 선, 서쪽은 섬진강 내로 확정하고 있다(그림2참조). 특히 가라7국을 평정한 후 해상으로 군대를 움직였다는 논리는 김인배·김문배의 의견과 일치한다.²⁹⁾ 다른 점은 후자가 그 무대를 규수로 비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제주도 와 영산강 유역이라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는 침미다례를 백제에게 주었는데, 백제의 초고왕과 왕자 귀수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고 한다. 이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는 것이다.³⁰⁾

그럼 스에마쓰는 “다음 셋째로 그 당시 스스로 항복한 4읍(四邑)을 생각해 본다”³¹⁾라면서 이 4개 읍의 위치를 비정했는데, 이를 알아보자(그림1참조).

(1)비리(比利)는, 먼저 위지(魏志) 한전(韓傳)에서 찾아보면, 마한 조(條)에 모비리국(某卑離國)·모모비리국(某某卑離國)이라는 여덟 개의 나라가 있고, 그 중에 단순히 비리국(卑離國)이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비리(比利)=비리(卑離)라고 해도 지장은 없다. 또한 호태왕비 말미에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 중에 새로운 한예(韓穢)의 하나로 ‘비리성간연팔가(比利城看烟八家)’가 보인다. 이어지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웅주(熊州)·전주(全州)·무주(武州) 지역에 모모부리(某某夫里)라고 불리는 군(郡) 또는 현(縣)이 모두 9군데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촌(村)·성(城)’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명으로서의 비리(比利)=비리(卑離)는, 비자화(比自火)의 비자(比自), 비사벌(比斯伐)의 비사(比斯)와 같이,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이던지, 혹은 발라군[發羅(par-ra)郡]에 비정해서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이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末松, 49-50쪽)

29) 김인배·김문배, 1995, 『역설의 한국고대사: 임나신론』 고려원, 300-369쪽.

30) 『日本書紀』神功 49년조.

31) 末松保和, 앞의 책, 49쪽.

스에마쓰의 논리는 『삼국지』 「위지」 한(韓)조에 비리(卑離) 또는 ‘모비리(某卑離)’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광개토왕릉비에도 ‘비리(比利)’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일본서기』의 비리(比利)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에마쓰가 『삼국지』의 ‘비리(卑離)’나 광개토왕릉비의 ‘비리(比利)’를 어디에 근거해서 전라북도로 비정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점은 논리 전개에 있어서 큰 약점인 것이다. 이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찾은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부리(夫里)’라는 지명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비리(卑離)’와 ‘광개토왕릉비’의 ‘비리(比利), 『삼국사기』의 ‘부리(夫里)’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이들 지명과 『일본서기』의 ‘비리(比利)’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만일 이들 지명을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는 비리가 전주나 나주 둘 중의 하나라고 써놓았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전북 전주와 전남 나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벽중에 대해서 찾아보자. 스에마쓰는 이렇게 말했다.

(2)벽중(辟中)은 위지(魏志) 한전(韓傳)에서 마한의 한 나라인 벽비리(壁卑離), 삼국사기의 벽성(辟城) 또 벽골(碧骨), (일본)서기의 피성(避城)에 해당하여,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로 비정된다.(末松, 50쪽)

이 역시 벽(辟)자 하나 가지고 꿰어 맞춘 결론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전라북도 김제라고 비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그렇게 비정했다.

다음 포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3)포미지(布彌支)는 아유키(鮎貝)가 삼국사기 지리지의 벌음지현(伐音支縣) (淸音縣・伐音村・富林縣)에 비정한 것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벌(伐)의 조선발음은 por, 음(音)은 um이 되고, 지명에서도 종음(終聲) m에 차용되기 때문에, 포미지=벌음지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벌음지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리(維鳩里)의 북쪽에 해당한다.(末松, 50쪽)

스에마쓰는 포미지의 위치 비정은 아유키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 유구리 북쪽으로 비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전남 나주 근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면서도, 『삼국사기』 「지리지」의 “청음현 本百濟伐音支縣 今新豐縣”의 기사를 들어 현재의 공주시로 비정하고 있다.

다음 반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4)반고(半古)는 아유카이(鮎貝)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말하는 반나부리(半奈夫里)의 반나(半奈)에 비정했지만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나부리(半奈夫里)는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군 반남(潘南)이다.(末松, 50쪽)

반고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자 아유카이는 『삼국사기』 「지리지」 반남군에 속한 반나부리(半奈夫里)현에 비정한 것이다. 반고(半古)와 반나부리(半奈夫里)는 다르지만 반(半)자 하나는 같지 않느냐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도 같은 맥락에서 반남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상 백제왕 부자가 군사를 끌고 와서 왜군과 합류하자 저절로 항복했다는 4개 현에 대해서 비정해 본 결과 문헌학적으로나 역사지리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억측만으로 전라북도를 임나 땅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계속해서 백제왕 부자와 왜군이 만났다는 의류촌(意流村)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에마쓰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넷째로 백제왕 부자가 황전별(荒田別) 장군 등과 만났다는 의류촌(意流村)에 관해 살펴보니 원주(原注)에 ‘지금의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한다’고 했으나, 그 주(注)는 본문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문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의류(ui-riu)는 당시 백제의 왕도 위례성(慰禮城: 漢城)의 위례의 대역(對譯)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분주(分注)에 있는 주류(州流)는 『일본서기』의 「천지(天智)기」의 주유(州柔)·소류(疏留), 『삼국사기』의 주류성(周留城)·두솔성(豆率城)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 현재의 땅으로서 아유카이는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산성(茂朱山城)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고, 이마니시 류(今西) 박사는 전라북도 고부군(高阜郡)의 우금암산성(遇金岩山城)으로 비정했다.(末松, 51쪽)

논리의 황설수설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관계없는 지명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다보니 쓸 데 없는 말이 많아지고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 스에마쓰는 의류촌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 36년조의 “築古沙夫里”와 “古阜郡 本百濟古眇夫里郡”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전북 정읍에 비정하고 있다.

스에마쓰의 논리를 계속 보자.

다섯째로 천웅장언(千熊長彦)과 백제왕이 두 번 회맹한 산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 (1)벽지산(辟支山)의 벽지는 앞서 말한 벽중(碧中)·벽골(碧骨)의 벽에 해당한다. 벽은 조선어 piok이다. 골(骨)은 조선발음 kor를 써서 촌락의 발음은 kor로 표기된다. 산의 옛 훈을 ‘무레’라고 하는 것도 한어(韓語)에서 후대에 산을 moi라고 말하는(『訓蒙字會』) 것은 그것이 전화(轉化)된 것일 게다.(末松, 51쪽)

이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기서의 벽지산은 앞서 전라북도 김제로 비정한 벽중(辟中)에 있다는 말이다. 동북아역사재단도 김제에 비정했다.

마지막으로 고사산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에마쓰는 이렇게 말했다.

(2)고사산(古沙山)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전주 고부군의 옛 이름(古名)= 고사부리(古沙夫里)에 해당한다.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의 땅이다.(末松, 51-52쪽)

스에마쓰는 고사산이 전북 고부에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들어 고부에 비정하고 있다.

5. 맺는 말

이상에서는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임나7국을 비롯해 스스로 항복했다는 4개 현, 백제왕과 왜 장군들이 회맹했다는 산들의 위치 지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언어학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근거도 박약했다.

예컨대 탁국(喙國)에 대한 설명에서 스에마쓰는 “탁국(喙國)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달구화현(達句火縣)에 대응시키는 것이 가장 쉽지만 그것은 탁순(卓淳)에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탁국은 달구화 남쪽 3리 남짓 떨어진 압독군(押督郡)이다. 압독의 독(督)이 탁(喙)과 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압(조선어 발음 ap)은 남쪽이나 앞(前)을 의미하는 조선어 ap, arp을 나타내는 것으로, 달구화의 지리적 관계로부터 생각해 보면 어울리는 이름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군이다”라고 말했다.

‘탁국’이 ‘달구화현’이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기에 비정하면 된다. 그런데 ‘탁순’을 달구화현에 비정해야 하니까 ‘압독군’은 경산에 비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위치비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래는 ‘A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B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압독’의 ‘독(督)’이 탁국의

‘탁(喲)’과 통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탁국’과 ‘압독군’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압독군’의 ‘압(押)’이 조선어 발음의 앞(前)이니까 탁국 앞쪽의 남쪽 고을이라고 말한다. ‘앞’은 절대적인 방위개념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이다. ‘앞’은 북쪽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구 남쪽에 위치한 경산의 옛 이름이 압독이었던 점을 들어 ‘탁국=압독군=경산군’으로 등식화시켜 버린 것이다. 언어학적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모순이다.

또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기사에는 “군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彌多禮)를 무찌르고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 …… 그때 비리(比利) 이하 4읍은 스스로 항복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는 이미 3국(가야를 포함하면 4국)이 정립하고 있었고, 가야 땅을 빼앗아 백제에게 준 일본군이 왜 다시 군사들을 서쪽으로 돌려 백제의 침미다례(강진으로 비정했으므로)를 공격했을까. 또 침미다례를 공격했더니 스스로 4읍이 항복했다고 하는데, 항복한 지역이 어떤 곳은 침미다례(즉 강진)로부터 2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일본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또 일본군이 땅을 빼앗아 백제에게 주고 있는 마당에 백제에 속한 지역들이 스스로 항복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지리적 공간상에 나타난 이런 모순은 임나일본부의 위치가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스에마쓰의 위치 비정은 거의 언어학적 방법에 따르고 있는데, 본래 그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음운학적 지식이 없다. 그의 위치 비정을 아유카이의 『일본서기 조선지명고』에 나와 있는 지명과 비교해 보면 거의 그대로 빌어다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학자 이병선은 아유카이의 위치 비정에 대해 “지명이란 원래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로 굳어진 것이므로, 같은 계통의 지명이 한국 땅은 물론 대마도나 규슈에도 넓게 분포하는 것인데, 이에는 상관없이 어형(語形)과 차자(借字)가 비슷하면 함부로 비정하여 한국 고대사를 마음대로 조작했다”고 혹평했다.³²⁾ 본고에서 그 말의 정당성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임나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비정을 통해 임나가 가야라고 말하고, 임나 강역이 전라도까지 걸쳐 있었다고 말하는 스에마쓰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임나부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과거로의 환원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인과 한국인은 본래 같은 뿌리에

32) 이병선, 1987,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5쪽.

서 태어났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함께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35년간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관념적 버팀대로서 기능했다”³³⁾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말에는 임나일본부의 한반도남부설이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3) 「임나일본부설」, 『두산백과』